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5월이 왔다. 아니 또 5월이 꽤 버렸다.
신록은 짙어가고 청춘남녀는 사랑을 속삭이는 이 계절에 광주 사람들은 음울한 제사를 준비한다. 그러기를 27년이다.
민주화라는 게 이뤄졌다. 사람들은 광주에 꽃을 던졌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했다. 반듯한 묘지가 지어지고 몇천만원, 몇억원씩 돈도 쥐어졌다. 그러나 그뿐, 광주사람들에게 5월은 항상 목격한 통증을 안겼다.

피폐해지는 몸과 마음

미국 학자 조지 카치아퍼카스 같은 이는 광주 5월의 역사적 의미를 멋뜨리지게 정리했다. "광주 5월항쟁은 1870년 파리 코뮌에 얹힌다.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

하여 한 도시를 통제했고 참가자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했으며 군대가 반격해 올 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는 나아가 광주항쟁이 마르코스 독재

아직도 五月痛을 앓으시나요

종식을 가져온 1986년 필리핀 민주화운동, 느린 대통령의 사퇴를 가져온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 1998년 천안문 사태, 1992년 태국 민주화운동,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어깨라도 으쓱해야 할까. 그러나 그뿐, 80년 5월 당시에 누가 이런 평가 받자고 카니발을 들었던가.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 안 죽고 살아남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굶어먹는다. 소설가 임철우도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1997년 다섯번째 5-

18 소설 '봄날'을 펴내면서 그는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내는 작업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런 반복체험이었다. 지난 10년동안 나는 내내 5월 그 열흘간의 시간을 수없이 다시 체험해야 했고 수많은 원혼들과 함께 잠들고 먹고 지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몰라보게 피폐되어가는 내 자신을 깨닫고 감쪽감쪽 놀라기도 했다. 고통스런 기억의 반복체험이란 것이 얼마나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인지 처음으로 알았

이 어찌 열구리 찢러 만들어진 것 같고, 광주 말고 타지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죄다 쓸러한 것 같아 마음 상할 뿐이다.

정형근씨도 망월동 참배

이제 상처는 아물고 흉흔은 가라앉을 때가 되었다. 그때 5월 27일날 도청에 남아 있던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살아남은 우리들도 이론 것이 있지 않은가.
반가운 것은 5월의 직접 당사자들인 유족과 부상자들의 '마음 열람'이다. 이미 2004년 봄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이 망월동을 참배할 때 유족들은 이를 따듯이 맞았다.

올 2월에는 우과 국회의원 정형근씨도 국립 5·18 묘역을 참배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도 아닐 것이고, 이젠 유족과 부상자들도 이들을 맞이할 일만 한 아량이 생긴 것이다.

더욱 반가운 것은 5·18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부 인사들의 자성이다.
"수많은 희생 위에 얻은 지금의 명예를 '관리'로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는 정수만 유족회장(보보 1일자 기고 '5·18민주항쟁 정신과 초심')의 말은 고맙기까지 하다.

<편집부부국장>kycho@kwangju.co.kr

시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 친부모라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 달이기도 하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특히 어린이는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귀한 보배다. 하지만, 이혼·가출 등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가정이 위급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들어 광주아동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3월 말 기준으로 50건에 달한다. 이는 2005년보다 32%나 증가한 수치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36건, 계모 5건, 동거인 1건 등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의 84%가 친부모나 가족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아동학대가 친부모와 가족을 비롯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린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화풀이 대상 정도로 여기는 일부 어른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경찰이나 어린이 보호 전문가

들이 개입하려 해도 "가정 내 문제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며 대들기 일쑤다. 이런 탓에 경찰도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건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어린이 현장'이나 '아동학대 방지법' 등 어린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국민은 누구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 학대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어기는 중대한 행위다.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예민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교화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또 필요할 경우 한시적 친권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때다. 어린이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당연한 인격체이며, 아동학대는 결코 '가정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 배심원제 사법불신 해소 계기돼야

내년 1월부터 형사재판에 배심원제가 도입되고 재정(裁定)신청 대상이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돈 없이도 보석이 가능하고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및 수사방법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의 재판과 수사관행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법 불신이나 '과행수사' 논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배심원제다.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에게 강제력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배심원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

후 110년동안 유지돼 온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생소하고 제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첫 실험인 만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의식이 강한 우리의 현실에서 개인인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심원 스스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당한 인신구속을 줄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운용이다. 법으로 제도화했다지만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사법개혁안이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12년 4월14일 밤 11시40분, 북대서양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1천500여 명의 목숨과 함께 가라앉았다. 타이타닉호는 높이 30m, 너비 28m, 길이 270m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였다. 영국인들은 불침선(不沈船)이라 장담하고 있던 터라 첫 항해에 나선 지 불과 4일17시간30분만의 참사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 날은 일요일, 날씨는 아주 맑았다. '수상 궁전'의 화려로운 시설들은 여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순항을 하던 타이타닉호의 앞길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음을 알리는 첫 무전이 들어온 것은 오전 9시였다.

사고 직전까지 수차례 경고 무전을 무시한 채 자만심에 들뜬 나머지 22노트라는 엄청난 속도로 파도를 갈랐다. 당번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시각은 밤 11시40분 조금 못 되어서였다. "빙산이다!" 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 물속 얼음덩어리에 열구리를 들이박힌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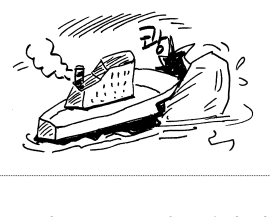
이 사건은 1등석의 부유층 가정 소녀와 3등석에 탄 젊은 화가의 사랑의 소재로 당시 사회상을 그려낸 영화로 제작돼 인기를 얻기도 했다. 또 '매스컴사'에서는 사고 소식을 타전한 무선 교신을 라디오 방송(뉴스 전달)의 효시로 보기도 한다.

이 비운의 타이타닉호에서 건져 올린 250점의 보석·공예품들이 올해 안에 캐나다 토포토에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전시품들은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RMS 타이타닉사가 북대서양 해저 3천800m 아래 침몰선에서 인양한 유물 5천500점중 일부다.

부유층의 것으로 추측되는 보석들 중에는 여우머리 장식 금관, 74개의 다이아몬드 장식 백금밴드, 1개릿과 2개릿의 다이아몬드 장식 백금 반지 등 다양하다. 영화속 주인공 로즈의 누드 그림에 그려져 있던 큼직한 목걸이도 있을 법해 벌써부터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나 싶다.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타이타닉 보석선

은펜클럽

김신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인 지난 1989년 11월 12일, 그 장벽 앞에 한 거구의 남자가 첼로를 연주한다. 연주곡은 첼로곡의 구약성서라 불리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수많은 사람들은 장벽 앞에서 홀로 첼로를 켜는 거구의 남자를 보며 가슴이 더위쳐 오는 것을 참지 못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다.
이 장벽의 주인공은 바로 첼리스트 크리스티안 로스트로포비치.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로 일컬어지는 그가 지난 4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라 신문지상에서는 장한나의 스승이란 머릿기사들로 앳다투어 보도되었지만, 사

지오네 소나타'를 처음 듣고, 첼로 음악에 경도되었다. 첼로와 인간이 하나가 된 듯 완벽한 일체감으로 슈베르트가 써놓은 음표 속으로 녹아들어 버리는 그의 연주를 들으며, 섬뚱한 전율 속에서 한 동안 숨을 골라야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이제 거장의 시대를 막을 내리는 것 같다. 수없이 많은 신예 음악가들이 기라성같이 등장하여 화려한 기교, 번뜩이는 천재성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로스트로포비치와 같은 거장의 빈자리를 대신해줄 수는

로스트로포비치를 추모하며

실상 그는 첼로를 연주하거나 공부하는 이들 모두의 스승이라 할 수 있을만한 진정한 음악의 거인이었다. 첼로가 낼 수 있는 음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한 그의 연주 테크닉과 깊은 음악성은 쇼스타코비치, 벤자민 브리튼과 같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상상력과 음악적 영감을 끊임없이 자극했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곡들을 현존하고 연주하였다. 20세기에 작곡된 240여곡에 이르는 첼로음악을 직접 초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첼리스트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의 투자와 사랑 속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음악 영재들은 거장의 화려한 영광 뒤에 숨어있는 치열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클래식 음악 매니아들에게도 로스트로포비치는 '첼로의 신'으로 통한다. 그가 남긴 무수한 레코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었다. 필자 역시 그가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과 함께 연주한 슈베르트 작곡 '아르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15세 때부터 첼로를 독학으로 훈련하여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 결국은 '첼로의 전설'로 자리하게 된 로스트로포비치.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로스트로포비치가 임원했던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린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관련한 소식이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오늘을 처음으로 첼로 음악의 아름다움 속으로 필자를 인도했던 1968년 데카 녹음의 슈베르트 '아르페 지오네 소나타' 레코드를 들으며, 그에 대한 추모를 대신해야겠다.

"슬라바!, 슬라바!.. 편히 잠드소서."
<음악칼럼니스트·2005년 11월 수상자>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대학 강의중 문자메시지 자제해야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 대신 언제부터인지 수업 시간에 같은 강의실의 여러 학생의 휴대전화로 일제히 문자 메시지가 오는 일이 잦아졌다.
벨 소리가 아니라 진동 모드라고 해도 몇대의 휴대전화에서 거의 동시에 '부르르르' 떨기 시작해 금세 표시가 나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우연이었겠거니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급급해서 알아봤더니 각종 싸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느라

어디선가 전화번호를 입수해 '00씨를 신입 회원 모집'안내 스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거기다가 초청강연이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안내, 채용설명회까지 다양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진동음은 개인의 학업 능력을 떨어뜨리며 수업 분위기를 방해한다.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무작위식 스펠링 메시지는 아무리 학교내 행사라 하더라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실사 그것이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일지라도 장소가 강의실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된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고

김화진



우리지역 체육관련 단체의 임원 구성이 비전문가와 전문가, 상임 부회장과 사무처장 등 이중적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사사 건건 갈등과 대립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야 할 스포츠 현장에서 마침내 끔찍한 살인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우리의 주변에는 예총, 건설협회, 상공인 협회, 장애인 협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들에 의하여 임원 등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당연한 것

하지만 그동안의 정치적 낙한 인사의 관행에 전문적 실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전혀 다른 직종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렇듯 특정 정당에 의한 민선 단체장들이 집권하면서 비전문인 또는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인데 어찌 우리지역의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스포츠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펼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과감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금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의

체육회의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살인극

이 아닌가 싶다. 왜 스포츠와 관련된 단체에는 정치인들이 농공행상의 결과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하는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문제는 이를 보면서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관련된 단체의 이사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성공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얼마 전 발생한 전남도 체육회 건부의 살인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 만행이다.

얼마전 광주 구공청의 생활체육회장 선임을 위해서 단독 후보로 내정된 정치인을 생활체육 각 종목 별 대표로 구성된 이사들이 압도적 표차로 불신임한 결과에 생활체육인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에서만큼은 결코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포츠 관련 단체의 이사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하려 하여도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분명한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바꾸면 된다.
우리 지역의 대학에 스포츠 및 생활체육과 관련된 대학원등 전문인 양성기관이 많이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룬 생활속에서 실현 될 수 있기에, 스포츠 활동은 이러한 균형 있는 삶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 생각 한다.

따라서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련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과제이다.
<한국 나눔운동 연합회 광주지회장>

리틀맘에 대한 매스컴의 미화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기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리틀맘'이라고 한다. 리틀맘은 출산 사실을 떼땀이 밝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어린 엄마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양육한다는 점에서 남편이 없는 미혼모와는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리틀맘을 추켜세우고 행복만 단면만을 보여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청소년들은 매스컴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한 리틀맘에 격려를 넘어서 열광하거나 동경하고 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18세 리틀맘의 미니 홈피 방문록에는 "힘내세요" "멋져요" 등의 댓글로 넘쳐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인터넷이나 TV 또는 잡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네티즌 사이에서 18세 리틀맘의 미니 홈피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더니,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에서 10대 부부의 이야기를 다뤄멘터리로 방송하기도 했으며, 리틀맘이 아칭 토크쇼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리틀맘을 무조건 동경하지 않도록 언론의 올바른 시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복만 모습과 함께 이들이 겪고 있을 어려운 또한 밝혀져야 한다. 리틀맘의 이야기가 선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바란다.
▲김민숙·광주시 북구 북동

Table with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